

# 윤범모 저, 『한국미술론』 (칼라박스, 2017.03)

## “한국미술론”을 향한 40여년의 행보

목수현\*



윤범모 교수의 『한국미술론』은 지난 2016년 가천대학교를 정년퇴임하고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 윤 교수의 한국미술 연구 4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저작이다. 모두 25편의 글을 싣고 있는 이 책은 여러 모로 그 범주가 매우 넓다. 시대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한국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술사 전반을 포괄하고, 주제로도 회화에서 조각, 전통미술문화의 재료와 기법을 망라하고 있다. 회화에서도 김정희의 〈세한도〉와 같은 수묵화를 비롯하여, 채색화, 민화, 초상화는 물론이나, 특히 불화에 대한 천착이 두드러진다. 또한 나혜석과 이인성, 이쾌대 등의 근대기 유화 및 일제강점기와 1960년대에 내한한 서양인 화가들의 판화도 다루고 있다. 발표 시기를 보아도 1982년에서부터 2016년에까지 걸쳐 있고, 발표 지도 학술지, 전시 도록, 구술채록서, 시사지 등 다양하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이 글들은 “좌충우돌하면서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한 편력의 산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고 긴 기간에 걸쳐 발표된 글들이 『한국미술론』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잡지사 기자,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 미술사가, 대학 교수로 펼쳐온 윤 교수의 이력 및 폭넓은 관심이 꾸준히 ‘한국미술론’에 닿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이 글들에 대해 저자는 서문에서 “통섭의 시각”을 취하고자 했다고 하였다. 통섭을 지향하며 저자는 미술사의 세 가지 장벽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대미술과

\* 명지대학교

근현대미술을 가르는 장벽, 장르로 나뉜 미술사 연구의 장벽, 일반미술과 불교미술의 장벽이다. 이러한 장벽을 허무는 미술사를 주창하며 저자는 이 시대가 '통섭의 시대'임을 강조하였다.

책에는 뒤쪽에 모아져 있지만, 저자의 본령은 한국 근대미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선학이 거의 없사피 한 한국근대미술 연구에 일찍이 천착하여 1993년 한국근대미술사학회를 창립하고 한국 근대미술사 연구에 이바지해 왔다. 마침내 동국대학교에서 근대 조각의 선구자 「김복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미 단행본으로 출간된 바 있다. 이 책에 실린 저자의 근대 미술 연구는 김복진을 비롯하여 필드워크를 통한 작가와 작품 발굴의 이력을 보여주는 것도 많다. 그리고 그 시각을 근대에 머물지 않고, 김정희, 채용신 등 전통 시대에서 근대를 잇는 맥이 무엇인가에 주목했으며, 초상화와 사진의 낡나듬 등 시대는 물론이고 장르 간의 통섭을 꾸준히 시도해 왔음을 보여준다.

저자의 통섭적 서술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작가라는 매개를 통해 일반 미술과 불교 미술의 유기적인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복진이 〈속리산 법주사 대불〉을 제작하다 타계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채색화가로 활동하다 월북한 정종녀의 〈진주 의곡사 괘불〉(1938), 원로 유화가인 오지호가 그린 〈원효가 대웅전 후불탱화〉(1954) 등을 발굴하여, 화단과 불교 미술의 낡나듬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조선후기에 발달한 감로도가 “한국불화의 독창성”을 열었듯이 현대 불교 미술도 정릉 흥천사 감로도(1939), 예산 수덕사 만공탑(1947), 조각가 최종태의 길상사 관음상(2000)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획일화 현상과 짝점 불사(佛事) 문제」(2011)에서는 낙산사 범종의 재현 등을 예로 들면서 ‘현대’ 불교 미술이 과연 현대성을 담보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과거의 전범을 ‘복사’하는 행태를 신랄히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저자는 그간 한국미론을 검토하면서 선학들이 간과해 온 지점이 불교미술임을 지적하고 1500년 동안 한국미술의 저간을 이룬 불교미술 및 사상을 그 한 축으로 등장시킨다. 이 책의 첫머리에 놓인 「한국미론 재고」(2006)에서 저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관점을 포함하는 한국미론을 전통 사상에서 추출하고자 하여, 원효의 무애행에 근간을 둔 “무애미론(無碍美論)”을 설파하고 있다. ‘거리낌 없음’으로 다시 이를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은 저자의 통섭적 시각과도 연관되는 사상이라고 하겠다. 저자의 이러한 시도는 장르간의 구분, 전통과 현대, 일반과 불교가 나뉘지 않는 미술을 아우르면서 한국 철학에 바탕으로 두고 한국미술의 한국성을 살펴보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한국미술사 연구는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시계(視界)를 제시해야 할 때가 왔다. 저자의 노작은 이러한 길에 든든한 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